

‘세계 12위→6위’ 한국, 코로나19 속 추 판매 유일 상승

상반기 내수 판매 94만여대
전년 동기 비해 6.6% 증가
세계 10대 시장 25.9% 감소
미국·서유럽·인도 등 부진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판매현황>
(단위: 천대, %)

구분	2019년 연간	2019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증감률
중국	25,769	12,318	10,257	-16.7
미국	17,480	8,696	6,627	-23.8
일본	5,195	2,753	2,208	-19.8
독일	4,017	2,028	1,501	-26.0
인도	3,817	2,049	987	-51.8
브라질	2,788	1,308	809	-38.2
프랑스	2,756	1,421	891	-37.3
영국	2,677	1,465	762	-48.0
이탈리아	2,132	1,213	668	-44.9
캐나다	1,976	1,012	666	-34.2
합계	68,606	34,265	25,377	-25.9
한국	1,795	890	948	6.6

* 자료: 각국 자동차협회, 마크라인 등

우리나라 내수 자동차 판매 규모가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12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의 내수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 25.9% 감소한 것과 달리 모범적 방역과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으로 빠르게 수요를 회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6일 발표한 ‘세계 10대 자동차 시장의 상반기 판매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94만 8000대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성적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미국과 서유럽을 비롯한 인도,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브라질 등 신흥시장 판매는 부진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 내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접촉·경제활동 제한 등이 강도 높게 발효되면서 상반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40% 넘게 감소했다.

인도는 4월 전국 봉쇄에 따른 판매 전면 중단으로 올해 2분기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 수준에 머무르며, 상반기 기준으로 50%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브라질은 올해 1분기 기준 자동차 판매가 9.2% 감소해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4월부터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며 상반기 기준 감소 폭이 38.2%로 확대됐다. 정만기 자동차협회 회장은 “글로벌 수

요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별소비세 감면 확대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판매 4000대 달성...기아차 유문수 부장 13번째 ‘그랜드마스터’

연평균 150대 판매...입사 30년만에 4000대 돌파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운정지점 유문수 영업부장. (기아차제공)

기아자동차는 운정지점 유문수 영업부장이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해 ‘그랜드마스터(Grand Master)’에 올랐다고 16일 밝혔다. ‘그랜드 마스터’는 기아차에 근무하며

누계 판매 4000대를 달성한 우수 영업직 직원에게 기아차가 부여하는 영예로 이전까지 단 12명만이 이름을 올렸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기록이다. 13번째 그랜드 마스터가 된 유문수 영업

부장은 1990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연평균 약 140대를 판매하며 입사 30년 만에 누계 4000대를 돌파했다.

유문수 영업부장은 “다양한 모임과 봉사활동에 진정성 있게 참여하며 한번 맺은 인연의 끈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경쟁사의 상품성 파악을 토대로 당사 차량의 장점을 깊이 있게 도출해 고객들에게 어필했던 것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유문수 영업부장에게 상패와 포상 차량 K9을 수여했다.

한편, 기아차는 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영업직 직원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판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판매 명예 포상 제도 △스타 어워드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 판매 명예 포상 제도”는 누계 판매 △2000대 달성 시 ‘스타(Star)’, △3000대 달성 시 ‘마스터(Master)’, △4000대 달성 시 ‘그랜드 마스터(Grand Master)’, △6000대 달성 시 ‘그레이트 마스터(Great Master)’, 칭호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제도다.

또 기아차는 연간 판매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기아 스타 어워드(KIA Star Awards)’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넷중 하나 백수” 하반기 채용시즌 무색...청년 체감실업 ‘역대최고’

청년 체감실업률 26.8%

2015년 집계 이래 최고

20대 후반 실업률 10.2%

올 하반기 채용시즌이 시작됐음에도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사실상 ‘주변 청년 넷 중 하나는 백수’인 수준으로 치달은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이 신규 구직세대인 20대에 편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성세대의 도움 없이는 자칫 미래세대의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체감실업률(15~29세)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전 세대에서 1년 전보다 2.0%포인트(p) 오른 13.9%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이 26.8%로, 전년동월대비 2.2%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상 가장 높은’ 청년 체감실업률이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5월(26.3%)에도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번에 또 최고치를 쓴 것이다.

단순히 역대 최고라는 점에만 주목할 문제가 아니다. 지표상 청년 체감실업률은 전 연령 대비 2배 정도 높은데다가, 증가세가 더욱 가파른 편이다.

◇채용시즌에 오른 청년실업...고령층, 정부 덕에 선방

이 같은 청년실업 증가는 올 초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던 청년들이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점차 경제활동을 재개하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 5~6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의해 청년 구직활동과 채용면접이 다소 활발해지며,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은 3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쉬었음’ 인구가 폭증하는 등, 감염 우려에 대비한 자발적인 경제활동 자제 분위기가 상존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에 접어들며 그러한 분위기가 다소 흐려진 상태다.

이에 따라 언제까지나 경제활동을 접어들 수만 없는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쉬었음 또는 구직단념 인구가 경제



활동인구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청년 실업률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0.7%로 IMF 외환위기에 여파가 지속되고 있던 1999년 6월(11.3%)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심지어 구직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실업률은 10.2%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나빠졌다.

이처럼 청년 고용부진이 두드러지는 동안, 상대적으로 선방한 연령대는 아이러니하게도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6월 취업자 수는 60대 이상(33만8000명)에서만 증가세를 나타냈다. 15~29세 청년(-17만명)·20대(-15만1000명)·30대(-19만5000명)·40대(-18만명)·50대(-14만6000명) 등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가 줄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마음 아프다”지만...채용 지원대책은 ‘아직’

청년실업 문제는 기업의 채용 문을 넓혀 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 시점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태다.

정부조차 코로나19 고용대책의 제1주 안점을 ‘기존 고용유지’에 두고 있다. 기업이 현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휴업수당을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금까지 정부가 실시한 대책의 가장 큰 기둥으로 평가된다.

아쉽게도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제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반영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이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다.

디지털 일자리, 일경험 지원 등 청년 11만명 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은 3차 추경에서 7%3억원으로 확정됐지만, 이들 사업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이전이다.

최이슬 기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가구에 더 효과적”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전 국민 지급보다 저소득 가구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여윌돈이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

증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20% 하락 때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순자산 하위 20% 가구에서 4.9%p 증가한 반면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서는 0.3%p 증가한다고 밝혔다.

직업별로 보면 상용근로와 자영업은 소득하락에 따라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자산 보유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과 같은 신용을 지원하면 위험가구 비율이 3.7%p 감소해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저소득 가구는 소액의 현금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소득 상위 가구의 경우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이 낮지만 적자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소액의 지원보다 신용지원을 통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지원을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그의 가구에 대해서는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방안은 고소득 가구의 채무부담을 증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하락 충격시 유동성 위험가구가 소득 하위 분위에 집중됨에 따라 적은 금액의 소득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도 “가계의 유동성 위험 완화를 위한 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선별적으로 소득 또는 신용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DI,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

저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영향 커

지원이 가계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자산에 여유가 있는 고소득의 경우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간한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20% 하락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의 비율은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4%포인트(p)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20%에서는 0.3%p

이 0.9%p 증가하지만 임시·일용직은 2.1%p 증가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낮고 자산이 없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에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보고서는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이 같은 가계의 부도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소득 가구의 유동성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경우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2%p 감소하지만 취약가구에